

125. 섬유제품 불량 상담 Q&A

- (32) 드라이클리닝의 색상 탈락 -

Q. 견직물을 드라이클리닝하면 다소 색상이 연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클리닝으로 색상이 탈락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떤지?

해설)

- 드라이클리닝하고 나서 색상이 탈락했다고 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음. 그러나 견직물의 경우 거의가 산성염료, 직접염료 등의 친수성 염료로 염색되어 있어 드라이클리닝 용제에는 대부분 색상이 잘 탈락되지 않음.
- 클리닝에 의한 오염제거에 의하여 클리닝 전보다 색이 연하게 되어 색상이 탈락되었다고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 남은 원단과의 색상 비교라든가 재현시험을 할 필요가 있음.
- 드라이클리닝으로 조금이라도 색상이 탈락되는 경우, 주위의 습도라든가 반복 수세에 따라 원단으로부터 수분이 드라이클리닝에 사용되는 유기용제 중에 축적되어 유기용제 중의 수분함유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색상 탈락이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음.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클리닝시에 증류, 정제 등의 용제 관리가 중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음.
- 또 사용하는 염료의 소수성이 강한 순서(직접염료→균염형 산성염료→밀링형 산성염료→함금속 염료)로 유기용제에 대한 용해성이 높아진다는 것도 알아 둘 필요가 있음.
- 최근에 착용 후, 옷깃에 붙어 있는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벤젠 등의 용제를 사용하는 경우 바탕색이 우려난다고 하는 사례가 있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벤젠 등의 용제에 대하여 산성염료나 직접염료는 거의 용해하지 않으나, 바탕색이 진하다든가 원단에 유연가공 또는 기타 마무리 가공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들 약제의 소수성 부분에 다량의 염료분자가 흡착되어 그것이 벤젠 등의

용제 속으로 우러나오는 일이 있음. 견직물을 드라이클리닝하는 경우, 유기용제에 대한 영향을 어느 정도 조사하고 나서 클리닝 작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진한 색의 견직물은 색상 탈락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